

익산시, 모든 시민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다이로움 인센티브와 결합, 골목상권-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 기대

익산=고운영 기자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인센티브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시는 범시민적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현을 시장과 유재구 시의회 의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이 시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방안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대상은 20일 0시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소를 둔 주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약 28만여명이며 재원은 예비비 등 현재 익산시가 보유한 자금 280억원이 투입된다.

1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 선불카드로 2월 중 주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다음달 시의회 긴급임시회를 통해 추경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결정된다.

2차 재난기본소득과 현재 시행 중인 지역화폐 다이로움 정책이 결합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함께 골목상권-지역경제 활성화 등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 다이로움은 올 상반기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정책 만족도 93.2%의 압도적인 긍정 평가를 받은 다이로움 정책은 재정투입 대비 3.6배 이상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와 전북도 선별지원 정



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차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지원을 시작으로 종교시설과 어린이집,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선별적 지원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경제 부양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현을 시장은 "소득지원의 형평성과 재정 집행 효율성,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전 시민에게 공평하게 재난기본소득

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구 시의장은 "전 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 행정에 적극 협조해 빠른 시일 내 지역경제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시, 동부권발전사업 5년간 415억원 투자

남원시는 제3기 동부권발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20일 하태욱 부시장 주재로 보고 회를 갖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동부권발전사업은 전라북도가 2011년부터 동부권 6개(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식품·관광·문화예술 분야 7개 사업에 4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식품분야에서는 미래 먹거리 핵심산업으로 추가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60억원)을 추진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오리정·버선발 연계 관광지

화(70억원), 교통산 국민관광지 활성화(80억원),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80억원),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60억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2기 동부권발전사업을 통해 광한루원 주변 도심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남원예촌을 조성했는데, 3기 사업에서는 도심권에 집중됐던 관광개발사업을 지리산권 내 백두대간 생태전사관, 국악의 성지 등의 관광자원과의 연계해 지리산 중심의 산악관광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태욱 부시장은 "동부권발전사업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규 기자

김대중 전 전북도의원 “모두가 잘사는 도시 만들 것”

김대중(사진) 전 전북도원이 “익산 시민이 원한다면 산이라도 옮기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익산, 더불어 잘 사는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호소하며 익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도의원은 20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익산에서 12년간 사도의원 활동을 하고 민주당 20년을 지켜오면서 느끼는 자부심이 있다”며 “젊은 소나무가 조상의 선산을 지키듯 익산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공식 출마 선언 전까지 딸과 함께 익산 시내 구석구석을 누빈 일화를 소개하며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떨어지는 매출에 가슴이 타들어 가고 2030 청년 세대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타지로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가들이 책상에 앉아서 다른 사람

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체감할 수 없는 익산의 현실을 가까이서 보고 들었다”며 “인구감소로 인해 무너진 호남 3대 도시, 출산과 보육 지원이 미약한 명품교육 도시, 미세먼지와 악취가 일상인 친환경 녹색도시, 역사와 문화가 없는 문화관광 도시, 이것이 익산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익산역을 주축으로 예인촌 설립 등 구도심을 개발해 500만 명이 찾는 익산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익산시민 누구나 다 아는 자랑스러운 그 이름,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서 익산시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고운영 기자

지역 포커스

익산시, 탄소 중립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

시민이 원하는 도심형 생태체험 공간 확충

익산시가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생태도시 조성에 힘쓴다.

20일 환경안전국은 올 한해 생태도시 조성과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산시는 다양한 식생 구조와 자연경관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도심형 생태관광지 조성에 주력한다.

금마저수지 일원 서동생태관광지에 연내 완공 예정인 식물학습원을 비롯해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 등의 시민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차·수소차 등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에 총 27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공



원 분야에 총 120억원을 투입해 도시숲, 가로숲길, 스마트가든, 어울림 정원 등을 조성해 녹색공간을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점마을 환경오염 피해지역에는 3년간 총 65억원을 투입해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한다.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치유하고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운영 기자

남원시, 설 명절 대비 특별방역-위생 점검

남원시는 설 명절을 맞아 특별방역·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며, 설 연휴 기간 중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명 맛집, 변화가·관광지 주변 음식점·카페와 유흥시설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패스 의무적용 이행,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여부를 중점점검하고, 식품과 관련해서는 △유류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영규 기자

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무주군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을 위한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상향하고 특례보증사업, 방역물품비 지원 등 소상공인 정책을 펼친다.

군은 무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지난 17일부터 오는 3월까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다.

상당은 신용보증재단에서(433-8403)에서 진행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등급도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으로 확대하면서 지원 폭을 넓혔다.

산업경제과 박각준 과장은 “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렬 기자

남원시, 블로그 기자단 10명 선발

남원시는 20일 ‘2022 남원시 블로그 기자단’을 10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블로그 기자단은 프리랜서, 직장인, 농부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블로그 기자단은 앞으로 1년 간 남원의 다양한 시정소식과 문화, 축제, 명소 등을 소개하고, 현장 취재를 통해 남원시 공식 블로그 및 SNS에 남원을 알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남원시 블로그 기자단은 여행·문화·축제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책정보, 행정안내 등의 소식을 77만9,914명에게 전달했다.

/박영규 기자



남공회, 신임 회장에 양충모 선출

남공회 신임회장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이 선출됐다.

남공회는 남원출신 중앙부처 공직자 모임으로, 1995년 이강중 전 경찰대학장을 초대 회장으로 창립해 현재 35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남공회는 지난 19일 남원시 서울사무소에서 방역을 위한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양 회장은 “남원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애郷심을 발휘해 앞으로도 국가예산확보 및 고향발전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남공회는 회원들의 성의를 모아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이임한 김양건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고향 후배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 우리사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고향발전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규 기자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49

010-3682-3233

서정우 삼익악기 - Viscount

전공자용 올드 바이올린, 첼로, 파이프 오르간 전문 취급

김슨기타 전문 총판

버들피리악기와 서정우악기가 함께합니다

“43년 전통” 버들피리악기가 서정우삼익악기 2층으로 확장이전!

STRUMENT I SEOJUNGWOO

서정우